

골 깊은 대치정국... 9월 정기국회 파행빛나

여야 국정원 국조 종결에도 고소·고발·제소 난타전 새누리 "결산국회 단독 개최"... 민주 고강도 노숙투쟁 서로 부담 돌파구 모색... 대통령·여야 대표 회담 주목

여야 간 '강대강' 대치 정국이 좀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9월 정기국회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향후 의사일정 조율은 고사하고 지난해 결산안 심사에조차 착수하지 못해 결산국회는 물론 정기국회의 초반부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여야간 고소·고발과 제소도 잇따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23일 박원순 서울시장에 지방선거를 겨냥해 불법 무상보육 관련 광고를 수차례

윤리위에 제소했다. ◇새누리당=일단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이 응하지 않고 있는 8월 결산국회를 열기 위해 급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를 단독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하지만, 결산·정기국회 파행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맞는 이번 정기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각종 핵심 국정 과제를 힘있게 밀고 나가기 위한 결정적 관문이기 때문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만 생각하고 주장하지 않고, 야당의 의견이 맞을 때는 적극 수용해 국정동반자로 잘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다만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접고 본연의 무대인 국회로 돌아와 민생 경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급주 중 국정 정상화의 실마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담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눈치다. 회담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청와대 측과 물밑대화를 계속하면서 부단히 움직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빈손 회군"이 어려운 상황에서 장외투쟁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선언하면서 실질적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할 수 있는 모책을 찾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지난 23일 4차 대중 집회에서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그

날까지 여기 광장에서 노숙하면서 천막을 지킵시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투쟁의 강도를 높이더라도 국민의 시선을 사로잡고 여론을 주도할만한 '묘안'이 없다는 데 고민이 있다. 당내에선 향후 투쟁 방식과 관련해 당 대표 단식 또는 릴레이 단식 투쟁, 지도부 삭발 투쟁, 전국 순회 투쟁, 광화문에서의 미니 의총 개최 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거론되고 있다. 물론, 원내외 병행투쟁의 원칙은 여전히 고수하기로 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광장(투쟁)의 강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정기국회 일정을 포기하거나 보이콧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0·30 국회 재보선 판 커질 듯

새누리 고혁신 의원 별세 경기 화성갑 포함 영·호남 등 최대 9석 전망

경기 화성갑에 지역구를 둔 새누리당 고혁신 의원이 25일 폐암으로 별세하면서 오는 10·30 국회의원 재·보선 실시대상 지역이 최대 9곳이 되는 등 전체 선거판이 커질 전망이다. 25일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2심까지 당선무효형을 받아 재·보선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지역은 인천 서구·강화을, 인천 계양을, 경기 수원을, 경기 평택을, 충남 서산·태안, 전북 전주완산을, 경북 구미갑 등 7곳에 달한다. 앞서 지난달 경북 포항남·울릉의 김경태 의원은 대법원 선고

에 따라 이미 의원직을 상실했다. 해당 지역의 재·보선 결과가 당선 무효형을 유지한 상태로 9월말까지 나온다면 재·보결선거는 모두 9곳에서 치러지게 된다. 지역이 수도권, 충청, 호남, 영남으로 고루 분포한 점을 들어 일각에서는 '미니 총선'으로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고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 이번 재·보선 결과는 여야의 당내 역학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새누리당에서는 서청원 전 대표와 안상수 전 인천시장, 민주당에서는 손학규 상임고문, 정동영 상임고문 등 거물급 인사들의 출마설도 제기되면서 10·30 재·보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불쾌한 靑

민주 지난 대선 '3·15 부정선거'에 빚대자 '금도 보여라' '귀태발언' 때보다는 수위 낮아...야 대표 회동 고려한 듯

청와대가 민주당의 '3·15 부정선거' 언급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지난 2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특위 소속 야당의원들이 지난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해 대선을 '3·15 부정선거'에 빚댄 것에 대해 "금도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반발하는 이유는 '3·15 부정선거' 언급을 대선 불복성으로 인식하고 있어서다. 청와대는 이전에도 현 정권의 정통성을 문제삼는 듯한 발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청와대는 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변인의 '귀태(鬼胎) 발언'에 대해 국민이 선정한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



독일에 체류하다 형수상으로 귀국한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이 24일 오후 빈소를 마린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정당에서 고인의 빈소를 찾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을 안내하고 있다. /연필뉴스

'형수喪'에 온 손학규, 안철수·김한길과 짧은 만남

정치 현안엔 말 아껴

독일 체류 중 형수상(喪)을 당해 일시 귀국한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빈소에서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 김한길 대표를 만나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정치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대표가 떠난 직후 안 의원이 빈소에 도착했으며 손 고문과 20여 분간 이야기를 나눴다. 그동안 정치권에는 여러 차례 '손-안 연대설'이 불거졌기 때문에 이날 두 사람의 만남은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안 의원이 "갑작스럽게 (형수께서) 돌아가셔서 슬픔이 크시겠다"고 손 고문을 위로하자 손 고문은 "건강은 좋아 보이셔서 다행"이라며 인사를 건넸다. 이어 안 의원은 "정치 상황이 지난 대선보다 많이 열악한데 이럴 때 손 고문의 해안이 필요하다"며 손 고문에 관심을 드러냈다. 손 고문은 26일 발인을 마치고 다시 독일로 떠나 현지 유학생활을 정리하고 다음달 25~30일께 귀국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당공천제 폐지' 조기 입법화 하라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요구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3일 정당공천폐지 공약 이행과 조기 입법을 요구했다. 전남 지역 22개 시·군 단체장은 이날 오전 영광군청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정당공천폐지 공약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

평가 라운지

이낙연 의원 "호남권 어음 부도율 전국 최고"

최근 10년 간 호남권의 어음부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낙연(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25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호남권의 어음부도율이 0.48%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0.13%보다 3배가 넘는 가장 높은 수치다. 다른 권역은 영남권 0.44%, 충청·강원·제주권 각각 0.39%, 수도권 0.11% 등 순이었다.

또 2008년 이후 5억 원 이상의 고액 어음부도율도 호남권이 0.26%로, 전국 평균 0.1%의 2.6배였다. 이 의원은 "어음부도율이 높은 것은 호남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각하다는 뜻"이라며 "호남의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광주은행의 지역 환원이 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남 의원 "한식 세계화 사업 총체적 부실"

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 의원은 25일 "이명박 정부의 중점 추진사업이었던 한식 세계화사업이 계획·관리·예산집행 등 사업 전 분야에 걸쳐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결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했고, 졸속 시행계획과 MB정부의 비호 속에 과다 편성된 예산, 사업관리 부실로 최근 3년간 평균예산 집행실적이 70%대에 머물고 있었다"며 "특히 연간 46억~94억원의 예

산이 이용 또는 불용처리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식재단,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지자체 등 각각 다른 기관에서 한식 세계화 관련 업무를 중복 담당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013년 10월 1일
**용봉동 17-1번지 하미스포렉스가
 굿모닝타운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3.3㎡ 당 임대료가 200만원
 분양가 250만원 각 과목별 집합 의료타운

187P×200만원 = 임대료가 3억7400만원
 분양가 4억6750만원

지상5층	501호 내과 502호 치과	지상6층	601호 안과 602호 이비인후과
지상7층	701호 성형외과 702호 산부인과	지상8층	801호 피부, 비뇨기과 802호 영상의학과
지상9층	901호 한의원 902호 소아, 청소년과	지상10층	1001호 재활의학과 1002호 가정의학과
지상11층	1101호 신경외과 1102호 정신의학과	지상12층	1201호 정형외과 1202호 향문외과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임대·분양 문의 : 062)252-0099

**시네마 (CGV) 계약완료! 골프장 계약완료!
 볼링장 계약완료! 수영장 계약완료!**

파격적인 임대료가 & 분양가

지하2층~지하1층	수영장(사우나,헬스) 계약완료	지상2층	PC방 203P
지하1층	음식점(중식, 베트남국수) 306P	지상2층	레스토랑카페 166P
지상1층	농협지점,하나로마트 845P	지상2층	볼링장 계약완료
지상1층	지상1층 현대폰매장 22P	지상2층	한정식 387P
지상1층	미용실 23P	지상 2층~3층	골프장 분양완료
지상1층	약국 69P	지상3층	일식 387P
지상1층	베스킨라빈스 44P	지상 3층~4층	영화관(CGV)계약완료
지상1층	롯데리아(맥도날드), 드롭탑 540P	지상4층	패밀리레스토랑 387P

Good Morning Sporenter Town
굿모닝스포렌터타운
 상업용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